

경영자와 근로자가 함께 하는 안전관리가 재해예방의 지름길

무재해 15배 달성 등 안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광양제철소 내에서 슬라브, 코일 등의 운송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성암산업(주)은 중소기업을 의심케 할 정도로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안전보건 전담 인원을 3명이나 배치한 것은 물론 안전을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안전경영의 중심에는 한승훈 대표 이사가 있다. 한 대표이사는 성암산업(주)에 취임한 후 바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근로자와 함께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전개해나갔다. 그 결과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최고의 안전사업장이라는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2013년도 안전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안전경영으로 무재해 현장을 조성하고 있는 한승훈 대표이사를 만났다.

취재 김효선 기자 russet0@safety.or.kr

성암산업(주) 한승훈 대표이사



Q. 늦었지만 '2013년도 안전경영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수한 안전관리활동을 펼치는 기업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자세로 안전작업을 수행해 준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 안전을 선도하는 모범 기업으로서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Q. 평소 '안전보건'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신념이나 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현장의 조그만 불편함이라도 해결하자는 것이 안전보건에 대한 제 신념이자 의지입니다. 제가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안전활동에 직접 참여하니 직원들의 의식 속에도 안전이 제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철두철미한 안전의식 아래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작업을 수행한 것이 결국에는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는 초석이 됐다고 봅니다.

Q. 그간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셨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회사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3조 3교대 근무 체제에서 4조 3교대 체제로 전환해 직원들이 행복하고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작업이 지속되는 광양제철소 내에서는 교대근무가 항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교대조를 하나 더 편성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성암산업(주)은 운송작업 특성상 운전자 한 사람이 대형 중장비를 단독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직원들 스스로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율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의 정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안전보건경진대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켜 온 것은 물론 포상제도를 실시해 무재해운동 목표 달성자에게는 특별 승급 등 인사상 혜택과 해외여행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멘토제 등을 운영해 선임 근로자의 안전 지식이 후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성암산업(주)이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이룩한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암산업(주)은 2003년도에 '산업안전 강조기간' 행사에서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5년 '광주전남 안전문화대상' 대상, 2006년 '전국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대상, 2007년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2009년 '제1회 전국 KOSHA 18001 운영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산업안전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이렇듯 성암산업(주)이란 이름 뒤에는 항상 '안전 최우선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상실적뿐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 성암

산업(주)은 지난 2007년 항만하역업종 최초로 무재해 15배 목표를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무재해 14배 목표 재달성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 2일에는 다시 한 번 15배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Q.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유독 산업재해 분야에서만 발전이 더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이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형태의 도급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결과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예방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Q. 끝으로 무재해를 꿈꾸는 산업현장의 경영진과 근로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무재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경영자부터 근로자까지 무재해를 염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천하지 않은 안전 보건 활동은 구호에만 그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무재해 운동을 실천해야만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어야 하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마음으로 안전 보건 활동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행동에 의한 사고 위협으로부터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자기 방어적인 안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